



## 간추린 청렴 소식

### [1] 서울중앙지검, '청렴 끝말잇기 릴레이'



기관장의 청렴 한마디를 시작으로 청렴 끝말잇기 릴레이를 실시하고 우수작으로 계단 표찰을 제작하여 민원인 통행 계단에 설치하였습니다.

청렴 릴레이 한마디와 직원들의 새해 소망을 담은 청렴 소원 트리도 장식하였습니다.

### [2] 대구지검, '청렴 세컷 및 청렴한마디'

기관장의 청렴 슬로건이 들어간 포토 인화지를 배경으로 직원 및 민원인들이 즉석사진을 촬영하고 청렴 다짐 카드와 함께 포토월에 전시하였습니다.



직원 및 민원인들과 청렴 의지를 다지며 추억도 남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3] 고양지청, '청렴 TALK 콘서트'



기관장이 자신의 반부패 경험담과 공직관 등을 이야기하고 직원들의 청렴 관련 블라인드 질의에 답변하며 청렴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해보았습니다.

기관장이 직접 작성한 청렴 다짐을 신규 직원들과 낭독하고 낭독문을 청렴 타임캡슐에 담아 간직하였습니다.

### [4] 영동지청, '청렴 골든벨'

기관장이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문제를 출제하고 직접 퀴즈 대항전을 진행하며 전 직원들의 청렴 지식을 함양하였습니다.



패자부활전과 청렴 돌발 2행시로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 칭찬합니다

### 2022년도 4분기 클린콜 우수 직원 선정

'23. 1. 30. 대검 검찰부에서는 일선 청 클린콜 조사 대상 업무\* 및 클린콜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렴활동 우수 직원 4명을 선정하고 격려**하였습니다.

\* 기록열람등사, 압수물 가환부, 기소중지 제기, 범죄피해자지원

서울중앙지검 윤민영  
충주지청 손지현

성남지청 윤형규  
영동지청 최태훈

아래는 클린콜 민원인 칭찬의견 중 일부입니다.

- 열람등사 절차와 불허가 사유에 대해 설명을 잘해주셨고 설명에 대한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도 물어봐주셨습니다.
- 친절하고 꼼꼼하게 업무처리를 해주셔서 감동받아 100점 드리고 싶습니다!

## 보고, 읽고, 느끼며

## 생각해보기 인생 명언

선수시절 나는 9,000개 이상의 슛을 놓쳤다.  
 거의 300회의 경기에서 패배했고,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슛 기회에서 26번 실패했다.  
 나는 살아오면서 계속 실패를 거듭했다.  
 그것이 내가 성공한 이유다.

- 마이클 조던 -

삶은 실수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하곤 합니다. 실수가 연속되면 스스로 자책하며 자괴감에 빠져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통해 얻는 것도 많습니다. 실수를 경험하면 다음 번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게 되지요. 실수를 통해 배울 수만 있다면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배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실수했다고 의기소침할 필요 없습니다. 실수를 딛고 일어서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청렴 상식이 쑥쑥!

##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 탈무드 「자물쇠로 문을 잠그는 이유」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무언가를 상자에 넣고 자물쇠로 문을 잠근 채 많은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 놔두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사람들은 자물쇠로 잠긴 상자를 보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물쇠를 부수고 남의 물건을 훔쳐가고 또 다른 극소수 사람들은 상자에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자물쇠가 있으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물쇠가 없다면 보통의 사람들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지요.

자물쇠로 문을 잠그는 이유는 바로 이런 보통의 정직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청렴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고 다짐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청렴을 외치지 않는다면 보통의 정직한 사람들마저도 부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렴은 부패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든든한 자물쇠입니다.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조선후기 문신 서유망은 이 **비석**을 넘어간 어영 대장의 마부를 가두고 임금의 타이름에도 굴하지 않고 법도에 따라 청렴하게 일을 처리하였습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타고 가던 말에서 내리라는 뜻을 지닌 이 비석은 무엇일까요?

- ① 백비                      ② 송덕비                      ③ 하마비

※ 힌트 : Monthly청렴 2023년 1월호를 참고하세요~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 응모기간 : 2023. 2. 20.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지난 1월 정답은 **① 오만**입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첨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추첨  
당첨

강OO(광주고검), 김OO(성남), 박OO(서울중앙),  
반OO(수원), 손OO(청주), 이OO(의정부),  
이OO(제주), 최OO(울산), 황OO(안산), 문OO(외부)



## 알아두세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을  
간단한 문항의 O / X 퀴즈를 풀어보아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 기관의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투자를 도운 경우 직무상 비밀 등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 X )

정답 X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금지하는 직무상 비밀 등이란 정보의 귀속이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미공개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재산상 투자를 도왔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함

청렴, 맑고 깨끗하고 향기롭게